



현장 경험 바탕의 기계개발의 달인

박스포장기계 수출 주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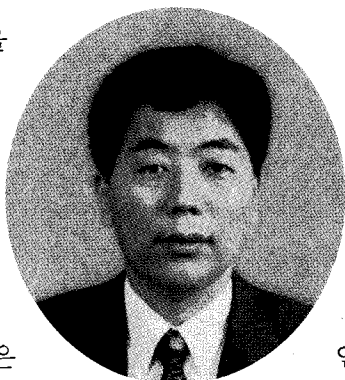
설 길 성 / 세일(주) 이사

포장업계가 이만큼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역할들이 기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 중 포장기계도 일부를 차지한다.

세일(주)의 설길성 이사는 포장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며 많은 포장기계를 개발해 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설 이사는 그만의 방식으로 10여종이 넘는 포장기계를 만들어 냈다.

75년 아성전기에서 '식품고온고압살균기'를 개발하면서 포장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는 설길성 이사는 "식품고온고압살균기는 제품의 수명을 늘려 보존기간이 길어지므로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함을 주고, 또한 원자재가 덜 들어감으로써 생산자들에게는 이익을 주었습니다"라며 첫마디를 던졌다.

77년에는 한국자동기로 옮겨 포장에 한발 더 내딛기 위해 많은 포장기계를 개발하는데 주력을 다하여 알사탕포장기, 과자포장기, 셀로판포장기, 진공포장기를 출시하는데 성공하였다.



설 이사는 이에 힘을 얻어 좀 더 활동범위를 넓히고자 83년 영등포에 성우공업을 설립하여 포장과는 좀 떨어진 다른 세계를 경험하였으나 포장에 대한 미련으로 87년 다시 한국자동기에 근무, 박스제조기계를 연구하던 중 지금의 세일(주)의 김승욱 사장의 제의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일(주)은 설 이사의 주도로 기계의 자동화 및 많은 제품에 대한 특허를 받았으며, 연간 30~36억원 정도였던 매출액을 70~80억원 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 당시 공장장으로부터 시작하여 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사로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뉘든지 하면 된다'라는 설 이사만의 경영철학이 만들어 낸 것이다. "포장과 관련해 뭔가를 얻어내고자 무엇이든 새롭게 보며, 아무리 하찮은 사물이라도 신중히 살펴보는 것이 지금은 습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라며 지금까지의 설 이사의 포장에 대한 열의를 짐작케 했다. 또한 설 이사는 "포장업계에 기여하고, 보다 앞서 나가

기 위해서 포장기계개발을 하는데 나 자신을 투자하고 싶다”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처음 세일(주)을 찾는 사람들은 회사내의 친숙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직원들과의 가족적인 테두리를 구성하여 대소사를 빠짐없이 챙기는 설 이사만의 경영방침에 기인한 것이다.

“직원들에게 ‘세일(주)은 나로 하여금 운영되는 것이며, 내 보금자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끌어당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 확실히, 쉴 때 화끈하게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설 이사는 덧붙여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기숙사도 물색 중이라 한다.

설 이사는 “뒤에서 밀어주며 힘이 되어주는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며 “처음 공장 내를 자동화시키기 위하여 포장기계를 만들어 설치했을 때 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계를 사용하면 육체적으로 편리할 것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잃을까 염려하여 기계를 들여놓고도 사용을 거부하여 한 대도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

다. 된 기계를 사용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화 기계 없이는 하루도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자동화 초기의 애로사항을 밝히고 잠시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소리 없는 웃음을 보였다.

포장업체가 발전함과 동시에 언급되는 것이 환경이다. 설 이사는 많은 포장기계를 발명하면서 그 기능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인면을 고려하여 소형폐수처리기, 미니캔압축기, 수성코팅기기 등을 만들어 냈다.

“포장업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은 항상 솔선수범하며 투자를 아끼지 말며 이윤은 개발에 투자하고, 직원들도 기존의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뭐든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열의를 갖고 함께 노력할 때 포장업체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덧붙인 설 이사는 마지막으로 투명한 경영을 강조했다.

기계 뿐 아니라 포장과 관련한 모든 분야로 시야를 넓혀 좀더 폭넓은 활동을 하고자 하는 설 이사에게서 포장업체에서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권해진 기자